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 나타난 대중문화와 문화주의 비판 연구

김성일^{*}

1. 서론
2. 분석 대상과 방법
 - 2-1. 분석 대상
 - 2-2. 이론적 논의 및 분석 방법
3.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
 - 3-1. 대중문화의 성격 비판
 - 3-2. 대중문화의 매체 비판
 - 3-3. 대중문화의 효과 비판
4. 문화주의에 대한 비판
 - 4-1. 예술 지향성 비판
 - 4-2. 정치 중립성 비판
 - 4-3. 서구 의존성 비판
5. 결론

국문요약

본 논문은 대중문화와 문화주의를 대상으로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 나타난 비판의 형태와 의미를 분석하려 한다. 당시 문화운동담론에서 대중문화와 문화주의는 억압받는 계급의 저항을 억누르는 데 사용됨으로써 지배계급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문화로 규정됐다. 출판운동의 일환으로 발표된 당시 문화운동담론은 시대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분석 대상이 된다.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는 대중문화의 성격과 매체 그리고 효과에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대한 비판이 다음과 같이 전개됐다. 첫째, 당시 대중문화는 상업문화와 외래문화로 비판됐는데, 노골적 이윤 추구와 일본과 미국의 문화 수용에 대한 비판이 이뤄졌다. 둘째, 왜곡된 문화정책의 산물인 '3S'에 대한 매체 비판이 진행됐다. 셋째, 대중문화의 효과, 즉 대중의 사회의식 마비와 왜곡된 신명을 주입한 문화 현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다음으로 당시 문화운동담론에는 문화주의와 관련해 예술 지향성과 정치 중립성, 서구 의존성에 대한 비판이 다음과 같이 전개됐다. 첫째, '예술을 위한 예술'을 표방한 문화주의가 내세운 예술의 본성에 대한 비판이 진행됐다. 둘째, 예술을 정치와는 무관한 영역으로 본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이뤄졌다. 셋째, 문화엘리트주의와 서구 문예사조에의 맹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론적으로 대중문화와 문화주의의 부정적 측면과 역기능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명확히 정리돼 있다. 문제는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서 이에 대한 실증적 선행 연구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당시 문화운동담론을 세세히 검토·인용하면서 주류문화 비판의 서사를 구성하고자 했다.

(주제어: 1980년대, 문화운동, 문화운동담론, 주류문화, 대중문화, 문화주의)

1. 서론

서울광장에서 열린 6월 항쟁 30주년 기념식(2017년)은 그 어느 때보다 뜻깊었다. 왜냐하면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를 통해 권력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민심이 새 정부를 창출하며 맞이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탄핵을 이끈 촛불집회가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은 특이할 만하다.

가령, 미선이·효순이 촛불집회(2002년)는 추모집회라는 무거운 주제에도 불구하고 여중생들이 집회를 주도하며 길거리응원전의 열기를 이어갔다.¹⁾ 일명 ‘광장정치’로 일컬어지는 촛불집회 속에서 참여자들은 정보적으로 긴밀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 게시와 토론으로 사태의 진단과 참여의 필요성을 자율적으로 도출하며 길거리를 정치와 문화가 펼쳐지는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시켰다.

위의 맥락에서 볼 때, 문화운동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촛불집회라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운동(대중지성이라 일컬어진 새로운 운동주체 등장, 정보적 소통, 스스로 마련한 인적·물적 자원 동원)에서 문화는 정치를 대중화한 운동의 핵심 자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로부터 문화는 향후 정치권력 행사방식의 재구성과 새로운 차원의 민주주의 구현을 판단할 주요 대상이자 근거로 부상했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는 아무 매개 없이 갑자기 만들어지고 전개된 게 아니라, 형성과 발전이라는 내적 성장과정을 갖고 있다. 즉, 2002년을 기점으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 즉 오노사건, 노사모 활동, 길거리응원전, 미선이·효순이 촛불집회, 이라크전 반대·파병반대운동, 대통령탄핵반대 촛불집회,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대중의 새로운 결집과 자율적 실천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촛불집회의 형성과 발전에 여러 차례의 사건과 계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2002년 이전의 운동과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는 면면히 이어져온 문화운동의 연속성과 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로부터 문화운동의 역사적 행보에 대한 재인식은 좋았던 과거에 대한

1) 미선이·효순이 촛불집회는 추모집회의 성격을 가졌지만, 거리 행진에서 ‘오, 필승 코리아’ 같은 월드컵 길거리응원전에 나왔던 노래들이 등장하면서 비장하면서도 흥겨운 집회 분위기를 연출했다.

낭만적 회상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현재적 좌표와 사회변동을 이해할 첫 번째 작업이 된다. 이에 본 논문은 1980년대로의 시간여행을 통해 위의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1980년대는 사회운동뿐 아니라 문화운동에 있어서도 운동의 이념과 성격, 대중 동원과 창작 원리의 규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대이다. 왜냐하면 ‘광주에서의 경험’을 통해 (당시의 용어로는 소시민으로 지칭된) 지식인 중심의 감상적 운동이 계급에 기초한 변혁운동으로 급속히 변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문화운동의 성격과 지향, 운동주체와 방식에 관한 전면 재조정이 이루어졌는데, 바야흐로 ‘사회과학의 시대’와 함께 ‘문화운동의 시대’도 함께 열렸다.

치열하게 전개된 1980년대 문화운동과 담론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다양하게 이뤄졌다. 그런데 이들 연구들은 10년을 한 단위로 설정한 만큼, 논의 전개에 있어 도식화와 일반화를 피할 수 없었다. 가령, 1980년대 문화운동을 지배문화(주류문화)와 민중문화의 대립으로 파악하며 당시 지배문화를 제도권 문화·보수 이데올로기 반영·대중 기만과 우민화·외래문화로, 민중문화를 비(非)제도 문화·진보 이데올로기 반영·민중성의 발현·민족주의 문화로 설정했다.²⁾ 또는 확고한 변혁노선 정립으로 사회변혁운동에 한 발 나아간 것³⁾으로 혹은 노동자 계급과 민중 그리고 전위로서 진보적 엘리트 집단이 주도한 실천으로 평가됐다.⁴⁾ 이와는 달리 당시 문화운동을 대중문화와 시민문화를 배제한 사회변혁운

2)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한울, 2013, 179쪽; 이영미, 「진보적 예술문화의 발전과 침체」, 『6월 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6월 민주항쟁 10주년 기념 학술대토론회 자료집 2』, 당대, 1997, 410-411쪽; 이동연, 「한국 문화연구의 역사기술학」, 『문화사회』 제2권, 문화과학사, 2006, 243-244쪽.

3) 박영정, 「80년대 민중문화운동의 전개과정」, 『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1991, 320쪽.

4) 양은경, 「1990년대 한국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의 형성과 권력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65-66쪽.

동 내부의 제한된 운동으로 보면서 문화 없는 문화운동이 전개⁵⁾됐고, 조직적으로 관여되지 않은 여타의 문화적 행위를 배제하며 문화운동의 정통성을 독점⁶⁾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평가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도식화·일반화 속에서 당시 문화운동의 특이성과 역동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가 된다. 이는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을 구성한 수많은 언어들과 그 안에 내재된 이론적 공백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당시 문화운동담론에서 주류문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가 사용되며 비판됐는가? 그 논리와 근거는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문화운동이 표방한 민중문화는 실제로 존재했는가 아니면 상상의 구성물이었는가? 당시 주류문화는 상종도 못할 정도로 불온했는가? 당시 대중은 주류문화의 전적인 피해자인가? 1980년대 문화운동과 담론 연구들은 위의 문제에 특별한 관심이 없었는데, 위의 의구심을 풀어보려는 게 본 논문의 문제의식이다. 그렇다면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서 주류문화로 불린 문화 현실은 어떠했는가? 1980년대 문화운동은 국가권력의 모순을 폭로하는 정치 투쟁과 주류문화의 허구를 알리는 이데올로기 투쟁을 동시에 수행했다. 이로부터 문화운동은 민족·민주·민중적 삶의 건설을 지향한 사회변혁운동의 부문운동으로 설정⁷⁾됐고, 민중의 삶을 왜곡시키며 정권 유지 도구로 전략한 주류문화에 대한 단호한 투쟁이 전개됐다. 당시 주류문화는 비민주적 정책과 이념의 선전 도구로,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며 예술의 순수성과 중립성에 집착한, 대중의 건강한 생활 의식과 비판 정신을 마비시키며 말초적 쾌락만 일삼는 것으로 규정됐다.⁸⁾ 이러한 비판은 문화운동의 성격과 필요성, 창작 원리의

5) 이동연, 『대안문화의 형성—한국 문화운동의 최전선』, 문화과학사, 2010, 38-39쪽.

6) 신현준, 「1980년대 문화적 정세와 민중문화운동」, 『1980년대 혁명의 시대』, 새로운세상, 1999, 224쪽.

7) 정이담, 「문화운동시론 III」, 『문화운동론 2』, 공동체, 1986, 88쪽.

내용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즉, 주류문화에 대한 반정립을 통해 문화운동과 그 담론 일부가 구성된 것이다.

당시 문화운동담론에서 주류문화는 대중문화와 문화주의, 관제 전통 문화와 외래문화로 규정된다. 대중문화와 문화주의를 대상으로 한 비판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관제 전통문화 및 외래문화 비판 일부가 전자의 비판과 겹쳐지기에, 본 논문은 대중문화와 문화주의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론적으로 대중문화와 문화주의의 부정적 측면과 역기능에 관한 논의는 명확히 정리돼 있다. 문제는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서의 비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관한 실증적 논의가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즉, 당시 발간된 원문에서 꼼꼼히 관련 내용을 찾아 정리한 작업은 없다.

이로부터 주류문화에 대한 당시의 비판 형식과 내용은 1980년대를 다룬 이후 연구와 언설 속에서 『계몽의 변증법』에서 취한 문화산업 비판과 차별성 없이 인식됐다. 당시 문화운동담론에서 취해진 주류문화 비판은 ‘광주 문제’와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의 절박함과 문화운동을 선도해 온 탈춤·마당극운동이 표방한 민중적 전통 혹은 저항적 민족주의 이념이 투영되며 전개됐다. 이는 주류문화에 대한 당시 문화운동담론에서의 인식이 단순하고 일면적이라 규정한 기존 연구들을 재검토하게 만든다. 관건은 단순하고 일면적이라 비춰진 내용들이 운동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포착되고 있는가에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당시 문화운동담론의 원문을 세세히 검토·인용하면서 주류문화 비판의 서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먼저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서 대중문화 비판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다음의 세

8) 황선진 외,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실천적 대안」, 『한국민족주의론 II』, 창작과비평사, 1983, 405쪽.

차원에서 살펴본다. 첫째 상업문화와 외래문화로 성격이 규정되며 전개된 논의를 알아본다. 둘째, '3S'로 대표되는 매체에 대한 비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본다. 셋째, 퇴폐·향락문화의 주입으로 대중의 사회의식이 어떻게 마비되고 왜곡된 신명에 사로잡히는지 분석한다. 다음으로 당시 문화운동담론에서 문화주의 비판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다음의 세 차원에서 분석한다. 첫째, 문화주의가 표방한 '예술을 위한 예술(art for art's sake)'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알아본다. 둘째, 정치로부터의 독립과 예술의 자율성을 주장한 행태에 어떤 비판이 전개됐는지 살펴본다. 셋째, 서구의 문예사조에 대한 맹목이 어떻게 이뤄졌고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알아본다.

2. 분석 대상과 방법

2-1. 분석 대상

'80년 봄'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으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동원과 통제에 뒤섞인 문화정책을 구사한다. 이로부터 '민주 대 반민주'라는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문화 영역 곳곳에서 투영됐다. 가령, 아시안게임과 올림픽게임을 비롯해 미스 유니버스 대회(1980년)와 국풍 81(1981년) 같은 대규모 행사 및 프로스포츠 개막이 정권의 비호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반면 언론 통폐합(중앙 일간지가 7개에서 6개, 경제지가 4개에서 2개, 지방지가 14개에서 10개로 정리)과 방송사 구조 개편(TBC의 KBS2로의 강제 통합, KBS의 MBC 주식 65% 소유)이 이뤄졌고,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뿌리 깊은 나무』, 『씨울의 소리』같은 정기간행물

172종에 대한 등록 취소 및 사회과학 서적에 대한 단속이 자행됐다.

이로부터 생각하고 글을 쓰며 말하고 노래하는 일체의 행동은 ‘운동’이 됐다. 즉, 일체의 사고와 표현은 집권세력의 검열과 통제 대상이 됐기에, 말과 행동에 ‘용기’와 ‘결단’이 따랐다. 이로부터 시운동과 무크운동 그리고 출판운동이 활발히 전개됐다. ‘시의 시대’로 불린 1980년대 시운동은 동인지운동과 지역문학운동으로 시작해 장르 확산 논의⁹⁾를 거치며 후반기에 교육시와 여성시운동, 민족문학주체논쟁으로 이어졌다.¹⁰⁾ 무크운동은 『창작과 비평』과 『문학과 지성』의 폐간을 계기로 일어났는데, 백낙청(『1983년의 무크운동』)과 정다비(『소집단 운동의 양상과 의미』) 등은 무크를 통해 문학운동의 가능성을 진단했다.¹¹⁾ 무크는 속보성과 기획성, 현장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항 매체로 각광받았다.¹²⁾ 출판운동은 정부로부터 ‘급진좌경 이념서적’으로 분류된 사회과학 서적의 출판을 통해 전개됐다.

위의 논의로부터 본 논문은 1980년대에 발간된 문화운동 관련 주요 무크와 사회과학 서적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이 되는 무크로는 『공동체문화』·『실천문학』·『녹두꽃』·『사상문예운동』·『문학예술운동』·『노동해방문학』·『삶과 멋』 등이다. 이들 무크에는 특집과 기획, 좌담과 창작론, 문화 동향과 정세 분석, 문예 같은 고정 코너를 통해 매회 다양한 글이 실렸다. 위의 무크들은 체

9) 장르 확산 논의는 1980년대 들어 폭발적으로 분출하기 시작한 기층 민중의 문학적 요구를 기존 문학 장르인 시, 소설, 평론 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대두됐다. 이로부터 수기, 르포 등의 탈장르화된 양식이 문학의 대중화와 민주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10) 김용락, 『민중문학론』, 『민중문화론』, 영남대출판부, 1993, 289쪽.

11) 이재현, 『민중문학운동의 과제』, 『문화운동론』, 공동체, 1985, 185쪽.

12) 조상호, 『1980년대의 사회비판과 출판언론의 등장』, 『한국언론과 출판지널리즘』, 나남, 1999, 327쪽.

계적 구성에 따른 완성도, 문화운동담론에 영향을 미친 화제성, 다수의 독자층을 갖춘 대중성에 입각해 선정됐다. 다음으로 문화운동 관련 사회과학 서적으로는 『문화운동론』·『문화운동론 2』·『노래운동론』·『노동해방의 논리』·『공동체놀이』 등이 있다. 이들 단행본에는 문화와 문화운동의 개념과 성격, 창작 원리의 구성, 장르별 문화운동 소개 및 사례 분석, 문화정책과 해외 문화운동이 실려 있다. 위 서적들은 문화운동의 이론과 실재를 총체적으로 아우르고 있고, 문예활동가들에게 교과서로 볼릴 정도의 파급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운동의 형태로 진행된 만큼, 위 매체 속의 글들에는 1980년대의 시대 정신과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원문의 꼼꼼한 검토와 세세한 인용을 통해 문장 속에 투영된 당시의 시대상을 그대로 드러내고자 한다. 그런데 대중문화와 문화주의 비판과 관련해 당시 문화운동담론에 나와 있는 글들은 매우 한정적이다. 즉, 주류문화 비판을 독립된 주제로 다룬 글은 없고 필자의 관심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언급돼 있을 뿐이다. 이는 당시 문화운동담론에 투영된 주된 시선이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과 문화운동의 실천 과제에 집중된 데에 따른 결과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 대중문화와 문화주의 비판은 각각의 글들 속에 파편화돼 있기에, 이를 한데 모은 후 분석 항목별로 배치해 조망할 필요가 있다.

2-2. 이론적 논의 및 분석 방법

광주민중항쟁을 계기로 변혁운동의 올바른 이념 정립과 계급에 기초한 변혁 주체의 설정이 ‘과학적 사고’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¹³⁾ 이제까

13) 1970년대 문화운동이 대학의 문화서클 중심으로 진행됐다면, 1980년대 문화운동은

지의 온정주의적 소시민운동에서 벗어나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계급운동의 닻이 오른 것이다.¹⁴⁾ 이로부터 문화운동은 한국사회의 변혁 과제와 연동해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분단 극복과 정치적 민주화, 민중 생활 개선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문화운동이 사회변혁운동의 부문운동으로 그 위상과 성격이 설정됨에 따라 문화운동담론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 즉, 문화와 사회와의 관계 및 문화의 정치성에 관한 논의, 전체 사회운동에 복무할 문화운동의 역할과 방법, 새로운 창작 원리의 모색 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제 문화는 민중의 구체적 삶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한복판에서 삶을 풍요롭게 이끌 생활양식의 소산으로 정의¹⁵⁾됐고,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총체성 속에서 물질적 생산 과정의 주요 부문으로 인식됐다. 이로부터 문화의 진정한 주체이자 담지자로 ‘민중’이 설정됐다. 왜냐하면 민중은 역사 발전의 방향성에 일치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¹⁶⁾ 이에 당시의 주류문화가 비판의 대상이 됨은 자명하다. 당시 문화운동담론에서 주류 문화는 억압받는 계급의 저항을 억누르는 데 사용됨으로써 지배계급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문화로 규정¹⁷⁾됐다. 아울러 대내외적 명분에 경도돼 도식화·박제화를 초래하며 민중의 자생적 문화 역량을 감퇴시킨 관주

민중이라는 운동 주체의 확고한 설정과 함께 운동의 대중화 및 조직화가 모색되었다. 광주민중항쟁의 경험은 민중이 관념의 대상이 아닌 현실의 변혁 주체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역사적 사건이었다.

14) 백원담, 『민중민주변혁운동의 현 단계와 노동자문화운동』, 『사상문예운동』 창간호, 공동체, 1989, 133쪽.

15) 황선진 외,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실천적 대안』, 『한국민족주의론 II』, 창작과비평사, 1983, 384쪽.

16) 임현영 외, 『좌담: 문학과 예술의 대중화를 위하여』, 『문학예술운동』 1집, 풀빛, 1987, 39쪽.

17) 김정현, 『대학문화패 활동의 올바른 방향정립을 위하여』, 『문화운동론 2』, 공동체, 1986, 207쪽.

도 문화정책과 민중의 삶을 대상화시킨 소재주의도 주류문화의 일부로 간주됐다.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서 비판된 주류문화는 대중문화, 문화주의, 관제 전통문화, 외래문화로 나뉘는데, 본 논문은 대중문화와 문화주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대중문화와 문화주의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당시 문화운동담론에서 가장 많이 비판된 대상이라는 점과 관제 전통문화와 외래문화 비판 일부가 위의 논의와 겹쳐지기 때문이다. 가령, 당시 문화운동의 주요 이념인 저항적 민족주의 시각에서 관제 전통문화와 외래문화는 대중문화와 함께 삶과 괴리된 반민중적·반민족적 문화로 비판됐다. 이로부터 본 논문은 다음의 연구방법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1980년대에 발간된 문화운동 관련 주요 무크와 단행본을 대상으로 대중문화와 문화주의 비판과 관련된 논의들을 발췌한 후 동일 내용의 기술(記述)들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맞춰 분류·배치한다. 이에 대중문화 비판은 성격·매체·효과라는 항목으로, 문화주의 비판은 예술 지향성·정치 중립성·서구 의존성이라는 항목으로 1차 자료들(원문)을 선별한다. 둘째, 항목별로 묶인 자료들을 논의 전개에 따라 최대한 제시함과 동시에 그 의미를 운동적 맥락에서 분석한다. 무엇보다도 당시 문화운동담론에서 전개된 주류문화 비판은 현실과 거리를 둔 비평 작업이 아니었다. 즉, 서구의 대중(소비)사회론에 기초해 문화 현실을 의미론적으로 해석하려는 작업이 아니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980년대는 일체의 사고와 행동, 글과 말이 ‘운동’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부터 당시 전개된 주류문화 비판에 대한 이해는 운동적 맥락의 분석을 요청한다. 즉, 주류문화 비판은 당시 문화운동의 성격과 이념, 정당성 모색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함께 사고돼야 한다.

먼저 본 논문은 당시 문화운동담론이 규정한 대중문화의 성격을 살펴

본 후 매체와 소비문화, 외래문화를 대상으로 어떤 비판이 전개됐는지 규명한다. 아울러 대중문화의 효과라 할 소외, 말초적 욕망 분출, 우민화에 대한 비판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분석한다. 대중문화는 자본과 그 자본을 대변한 정책 논리를 통해 문화의 수준과 질이 결정되고 그에 반(反)하는 가치마저 흡수하는 문화¹⁸⁾로서, 미적 획일화와 대중의 현실 인식을 약화¹⁹⁾시킨다고 비판된다.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서도 대중문화는 퇴폐·향락적인, 대중의 취향에 영합한, 상업주의적 소비문화로, 계급 지배의 안전판으로, 삶으로부터 괴리된 문화로 비판됐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서 문화주의 비판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문화운동담론에서 문화주의는 특별한 개념적 설명 없이 주류문화를 비판할 목적으로 지목됐다. 따라서 문맥에 따라 예술지상주의나 유미주의로 읽혀질 뿐, 본격적인 문예사조 논쟁으로 보기 어렵다. 당시 문화운동담론에서 문화주의는 질 높은 창작에 필요한 전문성에의 경도, 정치와의 연관성 회피, 예술의 영원성과 초월성 강조, 계급 이해를 초월한 무계급성, 문화엘리트주의, 서구 문예사조에 대한 맹신 등으로 비판됐다. 이에 본 논문은 당시 문화운동담론에서 예술성과 운동성의 관계 및 문화주의 성격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알아본다. 아울러 문화주의 특성으로 비판된 문화의 중립성과 자율성 주장, 예술성에의 경도, 서구 문예사조에의 맹신, 문화엘리트주의에 대한 비판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분석한다.

18) 조항제, 『여가와 대중문화의 이데올로기』, 『한국사회운동사—한국변혁운동의 역사와 80년대의 전개과정』, 한울, 1997, 178쪽.

19) 윤문무, 『자본주의와 대중문화』, 『오늘의 한국사회』, 사회비평사, 1993, 103쪽.

3.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

3-1. 대중문화의 성격 비판

한국에서 대중문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이다. 이는 당시 연구자들이 대중문화를 경제 근대화로 형성된 대중사회와 연결시켜 보려한 정황에 기인한다. 즉, 대중소비사회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서구 대중문화이론을 염두에 두고 한국에 적용시키려 한 것이다.²⁰⁾ 그러나 한국의 대중문화가 근대화의 맹아기에 제국주의 침략을 받아 왜곡된 길을 강요받으며 형성됐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²¹⁾ 이는 근대사회로의 이행 후 민중이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낸 서구와 달리, 형성기부터 민중의 삶과 의식으로부터 분리된 한국 대중문화의 특수성이 고려돼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중문화는 비판의 대상이 됐던 바,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서 대중문화는 상업문화와 외래문화로 비판됐다.

“소비 위주 대량생산의 상업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변태적 대중문화를 남발, 그것이 건강한 민중성의 문화를 압살하고 박제화시키도록 하는 ‘문화적 오염’을 의도적으로 유발...”²²⁾

“대중문화·예술이란 마돈나와 같은 지랄발광의 춤과 노래, 오로지 성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소설이나 영화, 값싼 돈으로 값싸게 즐길 수 있는 오락상품...”²³⁾

20) 박기성, 『문화커뮤니케이션과 대중문화』, 평민사, 1983, 242쪽.

21) 김창남 외, 『노래운동론』, 공동체, 1986, 131쪽.

22) 정창렬 외, 『권두좌담: 공동체의 역사·경제학적 전망과 문화운동의 시각』, 『공동체 문화』 제1집, 공동체, 1983, 1쪽.

위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서 대중문화는 자본과 결합한 소비문화이자 상업문화로 규정된다. 대중문화 성격을 위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당시 문화운동이 표방한 민중문화에 비추어 대중문화의 '반민중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²⁴⁾이다. 민중문화는 민중 성원 개개인의 욕구와 문화적 전통의 종합적 표현 의지²⁵⁾로 만들어졌는데, 그 정서로서 '민중성'의 재현물이라 할 수 있다. 민중성은 민중적 미의식의 본질로서 공동체적 삶을 옹위하고 그 공감대를 일상에서 확충하는 민중 의지에 다름 아니다. 민중성에 근거할 때, 당시의 대중문화는 민중의 삶을 반영하지도, 민중이 참여하지도, 공동체를 지향하지도 않는 문화였다.

“외래의 퇴폐문화·소비문화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과 생산적인 기풍 및 훌륭한 공동체적 유산을 파괴하고 경박·외설·사치·모방의 풍조와 극단적인 개인주의, 말초적 쾌락과 관능·괴기만을 추구하는 등 문화의 타락과 부패가 누적되어 왔다.”²⁶⁾

“뽕짝은 명백히 일제의 의도적인 문화정책의 산물이다. 그것은…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 침탈을 위해 자국으로부터 수출·이식한 침략문화이다.”²⁷⁾

23) 박승옥, 『노동운동에서 문예사업이 전개되어야 할 방향』, 『녹두꽃』 제1권, 녹두, 1988, 155쪽.

24) 대중문화의 소비는 계급 차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회적 작용을 충족시킨다. P. Bourdieu,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Richard Nice(tra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p.5.

25) 김성기, 『민중형식과 그 테두리』, 『문화운동론 2』, 공동체, 1986, 176쪽.

26) 채희완·임진택, 『마당극에서 마당굿으로』, 『문화운동론』, 공동체, 1985, 104쪽.

27) 문승현, 『노래운동의 몇 가지 문제들』, 『문화운동론』, 공동체, 1985, 219쪽.

위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서 대중문화는 일본과 미국의 문화적 침략에 의해 민족적·민중적 정서가 투영되지 못한 국적불명의 외래문화로 규정된다.²⁸⁾ 이러한 비판의 근거에 저항적 민족주의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외세의 침입과 지배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그 연원이 찾아지는 저항적 민족주의는 당시 문화운동이 표방한 대표적 이념이다. 이로부터 전통이 현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것,²⁹⁾ 즉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통로로 인식되면서 문화운동에 역사적 정당성이 부여됐다. 저항적 민족주의 시각에서 볼 때, 당시 대중문화는 전통과의 유기적 결합은커녕, 서구문화에 대한 동경을 부추기는 저질문화의 온상으로 규정됐다.

요컨대,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서 대중문화는 상업문화와 외래문화로 규정된다. 이에 민중 정서에 기초한 민중문화를 표방한 대안 문화가 제시됐다. 아울러 당시 대중문화는 전통과 단절된 외래문화로 설정된다. 문화운동의 정당성이 탈춤과 마당극 같은 전통연희에서 찾아진 만큼, 대중문화에서의 외래문화 잔재는 시급히 척결돼야 했다. 대중문화의 일반적 문제점으로 늘 지적된 것이 상업문화와 외래문화이긴 하지만, 당시 문화운동담론에서 바라본 시선은 한국 대중문화가 걸어온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즉, 서구 이론의 단순 적용이 아닌 일제 강점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문화적 종속이 초래한 현실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중문화 분석에 있어 역사 인식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적어도 당시 문화운동담론에서 이러한 자세는 충분히 견지됐다고 볼 수 있다.

28) P. Golding,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London: Arnold, 1977, p.291.

29) 최열, 『우리시대의 미술운동』, 『문화운동론』, 공동체, 1985, 240쪽.

3-2. 대중문화의 매체 비판

문화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맺어주는 온갖 종류의 매개물을 매체(미디어)라 부른다. 산업화와 체계화라는 현대적 갱신 속에서 매체는 대량화·대중화되는데, 투입된 비용이 큰 만큼 수익 창출의 요구가 커지면서 자본과 시장에의 종속은 점차 심화돼 갔다. 아울러 엄청난 파급력에 매력을 느낀 국가권력은 통치의 안정화를 위한 유용한 도구로 매체를 동원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한국의 경우, 대중의 문화생활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문화 소비에 집중됐는데, 이는 매체가 갖는 영향력이 한층 커졌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국가권력의 손아귀에 돌아날 확률도 상승했음을 의미했다. 따라서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서 발견되는 매체에 대한 태도는 매우 비판적이었는데, 이는 '3S' 정책과 문화 및 대중가요, 영상매체에 대한 비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3S 정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스포츠·섹스·스크린 이 세 가지는 민중적 기반이 없는 지배층이 자주 이용하는 대중조작수법이라는 것을 안다. 민중을 어리석게 만들고, 민중을 개별화시키고, 민중을 무분별한 폭력과 말초적 쾌락에 길들임으로써 민중의 저항의지를 말살하고 상품을 팔아먹는 대상으로,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문화적 노예로 만들겠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인가?"³⁰⁾

'3S'는 대중문화를 비판하는 대표적 용어인데,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서 '3S'가 명시적으로 표현된 사례가 드물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이는 대중문화 비판이 독립된 주제 하에 다뤄지기보다 특정 주제의 논의에서 선별적으로 이뤄진 데에 기인한다. 스포츠·섹스·스크린은

30) 민중예술위원회, 『삶과 멋』, 공동체, 1985, 60쪽.

대중문화의 대표적 매체로서 1980년대 대중문화를 이해할 핵심 키워드이다. 스포츠와 관련해, 전두환 정권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게임의 유치, 프로스포츠의 출범으로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 의식을 희석시키려 했다. 아울러 1982년도에 전격 단행된 통행금지 해제는 '밤 문화'가 융성할 조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향락산업의 본격 확장을 알렸다. 스크린의 경우, 폭압적인 사전 검열이 자행된 엄혹한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로영화에 대한 정권의 편애³¹⁾는 한국영화시장을 철저히 왜곡시켰다.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친미문학’, ‘반공문학’에 대해선 속으로 울분만 터뜨릴 뿐 그것을 보다 정리된 형태로 외화시키는 작업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³²⁾

“우리나라 대중가요는 비록 여러 가지 유행의 변화를 거치긴 했지만 매판·퇴폐·저질의 늪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한 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할 것이다.”³³⁾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서 문학과 대중가요에 대한 비판이 강도 높게 논의됐다. 문학운동은 전통연희와 함께 1960년대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 문화운동을 주도해온 대표적 영역이다. ‘민족문학론’을 위시한 다양한 논의는 문학의 사회성과 역사적 책무

31) 전두환 정권의 영화에 대한 사전 검열은 유신 정권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는데, 에로영화에 대한 검열과 규제만큼은 그 수위가 매우 낮았다. 이에 ‘애마부인’을 위시한 에로영화의 붐이 조성되면서 향후 한국영화를 주도하게 된다.

32) 백진기, 『문예통일전선과 80년대 후반기 민족문학의 대오』, 『녹두꽃』 제1권, 녹두, 1998, 13쪽.

33) 김창남 외, 『노래운동론』, 공동체, 1986, 21쪽.

를 규명하며 문화운동론의 심화를 이끌었다. 노래운동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장르 확산의 흐름 속에서 대중적 영향력을 가장 많이 보여줬다. 문학은 책의 형태로, 노래는 음반의 형태로 생산·보급된다는 점에서 대중문화 매체 분석에 핵심이 된다. 비록 출판시장과 음반 시장에 대한 진단이 명시적으로 이뤄진 것은 없으나, 문학과 노래라는 장르 분석을 통해 해당 매체의 문제점 파악이 가능하다.

“적어도 라디오와 텔레비전, 영화는 국가나 국가와 결탁한 몇몇 자본가들의 수중에 놓여 있어 대(對) 국민의식 교육의 첨단으로 맹활약하고 있다.”³⁴⁾

“우리 영화는 그동안 특권과 지배, 물신 숭배와 외국 숭배, 베스트셀러 숭배, 소재 숭배, 향토주의 숭배, 인기 숭배, 과대망상 등으로 명들어 왔다.”³⁵⁾

위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 영화에 대한 비판이 다양하게 전개됐다. 컬러 TV 방영은 내수시장이 확보되면서 보호무역주의로 곤혹을 치르던 기업들에게 이윤 창출의 새 활로를 제공했고, 이로부터 문화자본의 축적과 함께 문화산업의 성장이 본격화됐다. 또한 색조를 강조한 광고시장에 새로운 활로가 개척됐으며,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의 전환으로 청소년 소비시장을 급성장시켰다. 문제는 위의 매체들이 통치 안정화의 유용한 도구로 인식될 여지를 크게 증가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언론 및 방송에 대해 전면적 통폐합을 단행한 전두환 정권에 의해 그대로 실행됐다.

34) 김대호, 『해방으로서의 영화』, 『문화운동론』, 공동체, 1985, 254쪽.

35) 장선우, 『민중영화의 가능성』, 『실천문학』 창간호, 실천문학사, 1985, 149쪽.

요컨대,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서 대중문화가 '3S'로 규정됨과 동시에 문학(책)과 노래(음반)뿐 아니라 라디오와 텔레비전 및 영화에 대한 비판이 다양하게 전개됐다. 전두환 정권은 문화예술에 대해 광폭한 탄압을 자행했으나, 역설적으로 '3S' 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했고 그 효과를 톡톡히 봤다. 가령, 컬러 TV 방영과 통행금지 해제 조치는 기업으로 하여금 이윤 창출의 새로운 활로를 만들어주면서 돈독한 정경유착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해태 타이거즈'의 연이은 한국 시리즈 재패는 전라도 사람들에게 광주민중항쟁의 상흔을 잠시라도 (기만적으로) 잊게 만든 효자손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문화운동담론에서 '3S'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전개됐으면 좋았겠으나, 그 비판은 현상적 기술에 그쳤다.

3-3. 대중문화의 효과 비판

대중문화는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 감수성과 감각의 기초를 쌓을 적절한 창구가 된다. 그러나 대중문화는 상업적 이익을 위해 선정적·폭력적 내용마저 서슴지 않고 만들어내고 있으며, 현실 직시와 문제 해결의 합리적 모색보다 현실을 왜곡시켜 비합리적 환상이나 착각에 빠지도록 유혹한다.³⁶⁾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는 대중문화의 부정적 기능과 효과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문화를 정권 찬양의 도구로 활용해온 국가권력의 오용에 기인한다. 당시 문화운동담론에는 대중문화의 효과로서 퇴폐·향락문화가 초래한 삶과 놀이의 분리, 사회 비판 의식 결여, 왜곡된 신명에 관한 비판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36) 정지창, 『대중문화와 민중문화운동』, 『민중문화론』, 영남대출판부, 1993, 60쪽.

“매스미디어를 통한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대중문화의 팽배는 근대적 사회발전에 대응하는 민중의 생활의식과 일치하지 못하고, 대중의 취향에 복종하거나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반민중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³⁷⁾

“...대중가요가 귀에 익어 무의식 중에 흥얼거리게 된다. 그리고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들고 자신의 삶마저 그 노래를 닮아가게 된다.”³⁸⁾

위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서 대중문화는 퇴폐·향락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반민중적이라 비판됐다. 이로부터 대중은 대중문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직시하기보다 판타지에 사로잡혀 연예인의 화려한 삶을 쫓는 수동적 주체로 그려졌다.³⁹⁾ 이로부터 당시 문화운동담론에는 ‘현장성’이란 개념을 통해 삶과 문화의 일치를 모색한 논의가 다양하게 제시됐다. 즉, ‘삶의 사실’이라 부를 현장성은 문화를 통한 정서적 울림으로 작용해 자신의 삶과 현실을 새롭게 자각하게 만든다. 이에 동원 가능한 모든 창작 역량은 현장의 민중 사실에 최대한 밀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⁴⁰⁾

“자본의 논리에 의한 대중문화의 횡행은 노동계급의 건강한 의식을 마비·왜곡시키고 현실적 불만을 희석화시키는 역할을 조장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⁴¹⁾

37) 문호연, 「연행예술운동의 전개」, 『문화운동론』, 공동체, 1985, 53쪽.

38) 민중예술위원회, 『삶과 멋』, 공동체, 1985, 30쪽.

39) J. Stacey, *Star Gazing: Hollywood and Female spectatorship*, London: Routledge, 1994, p.97.

40) 심산, 「창작역량의 조직적 운용에 대하여」, 『녹두꽃』 제1권, 녹두, 1988, 184쪽.

41) 김정현, 「대학문화패 활동의 올바른 방향정립을 위하여」, 『문화운동론 2』, 공동체,

“...정치와 분리된 문화에 깊숙이 젖어들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들의 의식 및 행동과 대중정치와의 관련을 최대한 억지하려는 데 집중된다. 즉, 문화적 지배란 다른 아닌 ‘탈정치화의 정치상’인 것이다.”⁴²⁾

삶과 문화가 겹도는 대중문화 현실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민감성을 극도로 떨어뜨린다. 위의 논의는 대중문화가 제공한 멸균된 세상에서 자신의 삶과 사회를 직시하지 못한 현실이 비판되고 있다. 이에 대중문화가 만들어낸 상상의 세계는 언제나 현실을 비껴간다는 의미에서 ‘텅 빈 기표’라 하겠다. 지시 대상이 부재한 기표는 특정 의미에 고정되지 않음으로서 늘 떠다닐 수밖에 없다. 부유하는 기표는 현실 인식과 극복 과제를 외면한 채 말초적 쾌락만을 쫓는 현대인의 방향을 연상시킨다. 이로부터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는 문화운동이 시대의 문제에 대한 역동적 대응양식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폐가망신하는지도 모르고 빠져드는 것을 보면 춤바람에도 역시 나름대로의 신명이 있다고 하겠지만... 은밀하고 폐쇄된 곳에서 자기 혼자 또는 일대일로 상대방과만 행해지는 것이어서, 춤바람은 밖으로 펼쳐지지 않고 안으로 웅크려진다.”⁴³⁾

“...이러한 단순 배설적인 놀이는 놀이의 본래적 기능인 집단적 신명을 통한 문제의 해결 기능은 전혀 없고 단순히 현실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잊게 해주는 마약과 같은 기능만을 하고 있습니다.”⁴⁴⁾

1986, 213쪽.

42) 박현우, 「지식인 문화운동의 현단계」, 『문화운동론 2』, 공동체, 1986, 183쪽.

43) 민중예술위원회, 『삶과 멋』, 동녘, 1985, 64쪽.

44) 연성수 편, 『공동체놀이』, 공동체, 1985, 123쪽.

위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는 대중문화가 초래한 변질된 신명을 비판한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됐다. ‘신명’이란 응 어리진 한과 고통을 풀어헤침으로써 위안과 해방감을 얻게 해주는 놀이의 원동력이다. 무엇보다도 신명은 집단적(공동체적)·역사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단순히 ‘신이 난다’는 것으로 규정될 수 없다. 즉, 역사로부터 소외된 주체들이 자신을 억압·구속해온 마법의 고리를 깨치며 실천적 주체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동적 에너지이다.⁴⁵⁾ 이에 삶과 문화가 일치하고 노동과 놀이가 결합된 노작연희(勞作演戲)의 전통을 회복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새로운 지각 경험을 통해 민중 특유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소통이 활성화된다⁴⁶⁾는 것이다.

요컨대,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서 대중문화는 퇴폐·향락문화를 조장해 삶과 문화를 분리시키고 사회 비판 의식을 희석시키며 대중을 말초적 쾌락에 빠뜨린 장본인으로 규정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당시 문화운동담론에는 노동과 놀이가 결합된 전통문화의 재발견이 제시됐다. 대중문화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위의 비판은 타당하지만, 대중을 수동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당시 문화운동담론이 취한 대중사회와 대중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인한다. 즉, 대중사회는 소비사회와 겹쳐짐으로써 경쟁적 과시욕의 경연장으로, 대중은 파편화된 무정형의 집단으로 규정됐다. 이로부터 대중이 대중문화의 온전한 피해자로 그려짐으로써, 능동적인 문화 수용의 가능성은 애초에 기대될 수 없게 됐다. 문화가 헤게모니의 장이라면, 대중문화 안에서도 비판적 혹은 창조적 수용이 가능하다.⁴⁷⁾ 관건은 대중의 능동적

45) 강영희, 『마당극 양식론의 정립과 올바른 대중노선의 모색』, 『사상문예운동』 창간호, 풀빛, 1989, 90쪽.

46) L. Goldmann, *Cultural Creation in Modern Society*, St. Louis: Telos Press, 1976, pp.34-35.

문화 수용에 관한 실증적 자료가 있느냐이다. 적어도 당시 문화운동담론에서는 이러한 고민과 논의가 명시적으로 전개되지 않았다.

4. 문화주의에 대한 비판

4-1. 예술 지향성 비판

‘문화주의’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자 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문화로 본 19세기 낭만주의로부터 유래된 예술사조이다. 그런데 문화주의는 문화를 사회 변동의 유일한 동인으로 보거나 사회와의 거리두기로 자율성 확보를 주창한 것에서 보듯 다양한 지형을 이룬다. 한국에서 문화주의 비판은 일제 강점기에 일부 독립운동가들이 주창한 외교론과 문화주의(민족개론론)⁴⁸⁾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됐는데, 1960년대는 김우종과 이형기의 논쟁을 시작으로 불 지핀 순수·참여문학논쟁으로, 1980년대는 정치운동에의 미온적 태도를 보인 문화예술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순수·참여문학논쟁은 문학이 지닌 현실 인식과 사회 비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문인과 문학의 독자성과 비(非)정치성을 강조한 문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이다. 예술의 사회성과 정치성에 관한 문제의식은 1980년대 사회변혁의 시대적 과제가 부여된 엄중한 정세 속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급진적으로 확장됐다. 그러나 당시 문화운동담

47) J. Fiske, *Television Culture*, London: Routledge, 1987, p.316.

48) 일제는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문화주의를 통한 식민 통치를 실시한다. 이 정책은 주로 개량적 민족주의자들에게 흡수됐고, 특히 주권주의나 자강주의가 결여된 문화 개념만 흡수한 일본 유학파 지식인들에게는 일제의 강권을 부정할 시각을 빼앗아 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론에서 문화주의 비판은 일관된 논리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맥적 이해가 요구된다. 대중문화 비판과 같이 문화주의 비판 역시 독립된 주제로 논의된 바 없다. 이에 문화주의 비판은 예술사조에 대한 본격 논의가 아니다. 그러나 당시 문화운동담론에 산재돼 있는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일종의 ‘서사’가 만들어지는데, 이는 당시 문화운동의 이념과 성격, 창작 원리를 규명할 또 다른 통로이다.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는 예술의 순수성·서정성·영원성·초월성·세련성 등을 표방하며 민중의 접근을 어렵게 만든 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이 다양하게 제시돼 있다.

“문화주의는 문화를 일체의 인간생활을 조건 짓는 여타의 요소와 격리 시킴으로써 순수성과 독자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정치·경제·사회적 제 관심의 배출을 문화 속으로 수렴하려는 그 나름의 정치성을 띤 것으로 문화의 질과 양을 교묘히 조절하면서 허구적인 포만감을 조성하는 수가 많다.”⁴⁹⁾

위의 논에서 알 수 있듯,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서의 문화주의 비판은 매우 강도 높다. 그런데 당시 문화운동담론에서 문화주의가 개념으로서가 아니가 사회적 기능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언명 그 자체보다 이러한 명분이 초래한 ‘허구적 포만감’이라는 정치적 효과에 비판이 집중돼 있다.

“예술을 신비화시켜 온 관념론적 경향의 자유주의자들과 예술의 근본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기계적 유물론자들에 의해 유포... 그들은 이 ‘예술성’의 참뜻을 ‘서정성’, ‘세련성’, ‘실험성’, ‘형식성’ 등으로 뒤바꿔 말한다.”⁵⁰⁾

49) 채희완·임진택, 『마당극에서 마당극으로』, 『문화운동론』, 공동체, 1985, 109쪽.

“예술과 삶의 밀접한 관계를 환기시키면 요즈음의 ‘전문예술가’들은... ‘영원한 것’, ‘아름다운 것’, ‘초월적인 것’, ‘초역사적인 것’이 예술인이 지향해야 할 바라고 주장한다.”⁵¹⁾

위의 논의는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서 문화주의가 문화와 예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 즉, 예술의 기본 속성으로 간주된 미의 영원성과 초월성, 서정성과 세련성 등이 문화주의 잔영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대해 당시 문화운동담론에는 한쪽으로는 정서적 봉건성이, 다른 한쪽으로는 제국주의적인 매관 침략성이 짝을 이룬다고 논의돼 있다. 1980년대 들어 두드러진 민중의 문화예술 참여 증대는 문화주의가 드리운 음영을 충분히 걷어내고도 남아 있다.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에서 볼 수 있는 특성, 즉 창작 주체가 노동자라는 점, 그 언어가 삶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는 점, 시로부터 떠올릴 수 있는 기성관념을 뿌리 채 흔들었다는 점은 시사한 바가 매우 크다. 시와 소설은 물론 수기, 노랫말 바꾸기, 마당극, 촌극 등에서 다양하게 표출된 민중의 문화적 분출은 ‘보고문학’⁵²⁾ 같이 새로운 장르 모색으로까지 이어졌다.

“...실제로 기능 연마에만 치중할 경우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작용하는 보상심리가 문화활동에의 매몰을 가져올 위험은 항시적으로 존재한다.”⁵³⁾

50) 광주청년문화회, 『창작실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녹두꽃』 제1권, 녹두, 1988, 225쪽.

51) 김정환, 『예술성·운동성·대중성·민중성·일상성·전문성』, 『문화운동론 2』, 공동체, 1986, 125쪽.

52) 1980년대 들어 문화예술에의 민중 참여와 창작이 활발하게 전개되는데, 이들은 시와 소설 같은 기성 장르뿐 아니라 생활 수기, 일기, 수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표현했다. 민중이 기성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창작한 작품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보고문학’이라는 개념이 김명인, 채광석 등을 통해 제시됐다.

53) 최승운, 『문화예술운동의 현 단계』, 『문화운동론 2』, 공동체, 1986, 53쪽.

“문화패 활동은 자신의 투쟁이 전체 변혁운동의 통일적 지도노선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상황에 관계없이 문화적 활동을만을 고집할 때 흔히 문화주의적 편향으로 흐르기 마련이다.”⁵⁴⁾

문화주의 폐해는 주류문화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위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 문화운동진영에서도 문화주의 그림자는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이는 문화운동을 이끄는 문화예술가와 문예활동가가 갖고 있는 이중적 태도로부터 기인한다. 한편으로 이들은 완성도 높은 창작에의 욕망이 있는가하면, 다른 한편으로 정치투쟁을 통해 시대적 부름에 답하려 한다. 이는 ‘예술성과 운동성간의 갈등’으로 정식화되는데, 1980년대라는 시대 상황은 양자의 유기적 결합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대한 해결로서 ‘예술성’에 대한 제고와 함께 양자의 통일이 가능한 새로운 창작 원리가 제시됐다. 먼저 ‘진정한’ 예술성은 민중의 건강한 생명력의 표현과 기존 장르의 거침없는 해체와 재편 속에서 담보될 수 있음이 주장됐다. 다음으로 예술성과 운동성의 통일이 가능한 창작 원리로 민중 편애선 내용과 그들의 전통적 삶에서 싹튼 생활양식을 결합한 ‘민중적 내용의 민족적 형식’이 제시됐다.⁵⁵⁾

요컨대,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는 사회적·윤리적 요구로부터 예술의 자율성을 주장한 문화주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전개됐다. 왜냐하면 문화의 정치성을 규명하며 문화운동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했던 문화운동진영의 입장에서 위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하려는 안이한 태도로 보였기 때문이다. 예술의 지고지순함은 1980년대에 활발해진 문화예

54) 김정현, 「대학문화패 활동의 올바른 방향정립을 위하여」, 『문화운동론 2』, 공동체, 220쪽.

55) 광주청년문화회, 「왜 민중적 내용에 민족적 형식인가」, 『녹두꽃』 제1권, 녹두, 1988, 208쪽.

술에의 민중 참여를 통해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그런데 문화주의 비판이 예술사조에 관한 본격 논쟁이 아닌, 논의 전개상 선택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즉, 당시 문화운동담론에서 사회적 효능 외에 문화주의 자체에 대한 논의는 부재했다. 무릇,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뒷받침될 때 개념이 설명하려는 현상은 보다 잘 이해된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문화운동담론은 개념적 이해에 대한 천착이 높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4-2. 정치 중립성 비판

문화주의는 예술적 형식 속에서 미의 가치를 찾으려는 미적 엄격주의를 표방한다.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는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외친 문화주의에 대해 다양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 문화와 사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고 문화의 정치성을 규명하려 한 일련의 노력들이 비판의 논거로 작용했다. 이로부터 문화는 삶과 밀접히 연관된 인간 의식과 실천의 총체로 정의됐고, 문화의 도구화와 물신성에 맞선 문화운동의 과제가 제시되기 시작했다.

“...문화주의적 인식, 즉 문화를 정치와 분리해서 사고하거나, 정치와의 관계를 기능적 관점에서만 파악했던 인식을 극복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이다.”⁵⁶⁾

“물론 문학은 정치가 아니며 경제, 사회, 심지어는 가장 가깝다고 일컬어지며 때론 한몫으로 묶여지기도 하는 문화와도 또 다르다. ...문학이 그런 곳까지 손을 대는 것은 그 자체가 문학의 본령을 망각하는 월권행위가 된다는 생각이다.”⁵⁷⁾

56) 박현우, 『지식인 문화운동의 현 단계』, 『문화운동론 2』, 공동체, 1986, 201쪽.

위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는 정치로부터의 독립과 자율성을 주장한 일체의 태도나 입장이 문화주의로 규정돼 비판적으로 다루지고 있다. 이로부터 운동을 빙자한 문화나 문화를 빙자한 운동이 아닌, 운동으로서의 문화와 문화로서의 운동이 통일된 문화운동이 주창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른바 현실문제로부터 의식적인 중립성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인간이 생래부터 역사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그 어떤 ‘초역사적’인 존재성을 애써 추구하는 것이다.”⁵⁷⁾

“과연 순수문학이란 무엇인가? ...일체의 현실, 일체의 민중적 요구를 ‘순수하게’ 벗어나고 환상과 이국과 괴기와 아주 먼 과거에만 관심을 가지도록 함으로써...”⁵⁸⁾

위의 논의에 비춰볼 때, 모든 삶은 정치적이라는 점에서 ‘중립’은 또 다른 정치적 입장의 표현이다. 문화주의가 표방한 미의 순수성과 초월성도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무관심과 초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의 투항이라 할 수 있다. 광주민중항쟁에서 봤던 희망과 절망은 순수문화와 참여문화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당시 진리의 기준은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직시할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될 뿐이었다. 이에 문화주의에 대한 당시 문화운동담론에서의 비판도 순수와 참여가 아닌 참과 거짓의 판별에 대한 용단의 문제로 전개됐다.

요컨대,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는 정치로부터의 중립성을 주장하

57) 민중예술위원회, 『삶과 멋』, 동녘, 1985, 10쪽.

58) 민중예술위원회, 『삶과 멋』, 동녘, 1985, 11쪽.

59) 조정한, 『민주주의 민족문화론에 대한 자기비판과 〈노동해방문화론의 제창〉, 『노동해방문학』 창간호, 1989, 260쪽.

며 예술의 순수성을 강조한 문화주의에 대해 날선 비판이 전개됐다. 이로부터 문화주의 허상을 벗겨내고 계급이해에 기초한 문화 창작 및 운동에 관한 주장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이 논의는 이후 문화의 주체를 민중이라 자각하며 전개한 문화운동이 참으로 민중적이었는지, 민중이 주체가 된 문화가 정말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성찰로 이어졌다. 즉, 민중적 문화예술의 내용과 형식을 인텔리들이 주관주의에 매몰되어 강요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반성이 촉구된 것이다. 문화운동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사회변혁운동에서 지식인(당시의 용어로는 소시민)의 존재론과 역할론은 늘 논란의 대상이었다. 왜냐하면 지식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중산층)와 실천상의 선도 역할은 온전히 일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계급적 한계의 극복을 위한 노력이 언제나 요구됐던 바, 문화주의 비판은 이러한 자성의 노력이었다.

4-3. 서구 의존성 비판

서구의 대중문화 형성이 근대화에 따른 시민계급의 상승과 같은 궤에 놓여 있다면,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의 대중문화는 선진제국의 식민지 정책 속에서 왜곡된 길을 밟았다. 이로부터 한국 대중문화는 대중적이지 못하면서 전통과도 단절된 국적불명의 오염된 문화로 인식됐다. 이러한 시선은 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에서도 극명히 드러나는데,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는 문화주의 특성으로 문화엘리트주의와 서구 문예사조의 맹목이 거론돼 있다.

“공동화(空洞化)된 개인주의문화, 엘리트문화, 상층문화는 사적인 욕망과 전문적 관심의 방목장 내지 신분 상징으로 전락하여 문화가 총체적으

로 지배의 도구로 되는..."⁶⁰⁾

"노래라는 것 자체가 원래부터 생활하고는 동떨어진 어떤 특별한 감정의 세계를 다루는 것이라느니, 노래는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보다는 좀 여유 있고 세련된 사람들로부터 나온다느니..."⁶¹⁾

위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 당시 문화운동담론에는 문화엘리트주의 비판이 문화주의와 연결돼 논의되고 있다. 문화엘리트주의란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교양을 갖춘 소수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이다.⁶²⁾ 이러한 엘리트주의적 불력은 대중에게 문화적 열등감을 심어주고 지배체제에 저항할 문화운동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비판됐다. 이로부터 문화운동은 문화가 일상이 될 수 있기 위한 활동, 즉 예술교육과 생활문화집단의 조직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⁶³⁾ 또한 민중의 일상에 파고들어가 이들과의 부단한 접촉을 시도하며 창작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의도 전개됐다.⁶⁴⁾

"...마당극을 놓고 표현기법상의 문제를 평가할 때 그 기준을 서구의 연극미학이나 기성 연극관에 두는 것은 부당하리라는 점이다."⁶⁵⁾

"사회적인 조건이나 담당 주체와 분리시켜서 수기의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장편소설을 평가의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은 '노동자의 눈'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은 '노동자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있

60) 채광석, 「분단 상황의 극복과 민족문화운동」, 『문화운동론』, 공동체, 1985, 42쪽.

61) 연성수 편, 『공동체놀이』, 동녘, 1985, 48쪽.

62) M. Amord, *Culture and Anarch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p.6.

63) 정희섭, 「민중문화와 민중문화운동」, 『민중문화론』, 영남대출판부, 1993, 42쪽.

64) 김봉준·라원식, 「함께 나누어 누리는 미술」, 『문화운동론』, 공동체, 1985, 243쪽.

65) 채희완·임진택, 「마당극에서 마당극으로」, 『문화운동론』, 공동체, 1985, 110쪽.

다는 것을 보여줄 따름입니다.”⁶⁶⁾

위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는 서구 문예사조의 맹신이 문화주의의 또 다른 성격으로 지목돼 비판된다. 마당극은 사회적 현실의 한복판, 즉 삶의 마당에서 민중의 구체적 삶과 염원을 필요에 따라 설정된 공간을 통해 표현하는 전통연희이다. 문제는 마당극을 서구의 연극미학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인데, ‘민중적 내용의 민족적 형식’의 창작 원리는 마당극을 문화양식이면서 문화운동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이에 서구 문예사조의 무원칙한 적용과 의존은 전통과 현실로부터 유리된 지식인 엘리트의 타성 및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는 몸부림에 다름 아니다. 이들의 허세는 민중이 직접 창작한 작품에 대한 태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즉, 기성의 서양 예술관에 입각해 내적 완결성에만 주목하려 한다. 그러나 위의 작품들은 노동 생활의 절실한 체험으로부터 쓰였고 이를 극복하려는 운동의 일환이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⁶⁷⁾ 현실 묘사에 그칠 뿐 미래에의 전망이 부재한 작품은 소재주의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다.

“...조세희의 작품에서 앞서 말한 모더니즘적인 체질이 첨예한 민중적 현실에 맞부딪혔을 때 그 둘 사이의 모순관계가 작품의 문체나 연작형태의 교묘함, 이야기의 전개방식이나 거기에 환상성과 공상성을 내포하는 형식으로 귀결...”⁶⁸⁾

66) 임헌영 외, 『좌담: 문학과 예술의 대중화를 위하여』, 『문학예술운동』 1집, 풀빛, 1987, 16-17쪽.

67) 신승엽, 『노동문학의 현 단계』, 『문학예술운동』 1집, 풀빛, 1987, 162쪽.

68) 임헌영 외, 『좌담: 문학과 예술의 대중화를 위하여』, 『문학예술운동』 1집, 풀빛, 1987, 27쪽.

"리얼리즘의 가장 큰 적은 초현실주의라는 이름을 가진 '반형상'의 괴물이다. 인간의 형상을 기형화하고 불구화하는 오점투성이의 작품을 놓고 예술성과 아름다움을 논하는 부르조아적인..."⁶⁹⁾

위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서 서구 문예사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비판한 사례는 모더니즘과 초현실주의에 국한돼 있다. 본격적인 문예사조 논쟁이 아니었던 만큼, 모더니즘과 초현실주의 비판은 개념적 접근보다 사회적 효능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실 기존의 권위와 전통을 부정하며 혁신적 예술 창조를 도모한 모더니즘과 초현실주의는 그 자체로 진보적 성격⁷⁰⁾을 갖는다. 그러나 한국의 암울한 정치 상황 속에서 이러한 예술사조는 비판의 대상이 됐다. 따라서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 부조리한 현실을 관조적 태도로 바라본 것은 민중과 함께 하지 못한 소시민적 한계로 비춰졌다. 또한 구체적인 삶의 묘사를 거부한 초현실주의도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관념상의 유희로 지적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부터 당시 문화운동담론에는 예술이 삶의 과정과 사회관계에 기초해 민중 현실을 담아내야 한다는 주장⁷¹⁾이 제기됐다.

요컨대,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는 문턱을 높게 만들어 문화예술에의 민중 참여를 어렵게 만든 문화엘리트주의와 서구 예술사조에의 맹목으로 민중이 창작한 작품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행태에 대해 다양한 비판이 전개됐다. 문화주의의 이러한 태도는 민중이 일상적으로 문화예술을 접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민중의 문화생활을 알보게 만든다.

69) 광주청년문학회, 『창작실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녹두꽃』 제1권, 녹두, 1988, 229쪽.

70) A. Willener, *The Action Image of Society on Cultural Politicization*, N. Y: Pantheon, 1970, p.281.

71) 장명국, 『오늘의 저자는 무엇을 써야 하는가』, 『녹두꽃』 제1권, 녹두, 1988, 248쪽.

이에 대해 당시 문화운동담론에는 문화의 주체로 민중을 설정함과 동시에 문화의 본질을 민중의 삶 속에서 찾는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됐다. 본래적으로 문화는 다수의 사람이 만들어낸 총체적 생활양식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을 갖는다. 즉,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배타적 소유물이 아닌 것이다. 이와 관련해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은 문화를 공공재라는 인식에 기초해 문화주의를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은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서 주류문화에 대한 비판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대중문화와 문화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80년대 문화운동에 관한 연구가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진행됐지만, 당시 주류문화에 대한 문화운동담론에서의 비판을 다룬 선행 연구는 없다. 이는 당시 문화운동담론에서 주류문화에 대한 비판이 독립된 주제로 다뤄지기보다 다른 주제의 논의 속에서 선택적으로 진행된 정황에 기인한다. 본 논문은 각각의 문화운동담론에서 간헐적으로 언급된 대중문화와 문화주의 비판을 꼼꼼히 추려내 분석 항목에 따라 재배치시켜 하나의 서사를 구축하고자 했다. 아울러 원문의 내용을 최대한 인용함으로써 1980년대의 언어가 품고 있는 시대 정서를 온전히 드러내고자 했다.

이로부터 본 논문은 당시 문화운동담론에서 진행된 주류문화 비판의 형태를 실증적으로 밝혀냄으로써 기존 연구들에서 원문의 충분한 자료 제시 없이 일반화한 행태를 지적함과 동시에 논의의 실질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즉, 당시 주류문화를 '3S'로 일반화하며 비판한 기존 연구와 언설들에 대해 구체적 근거로 삼을 자료를 꼼꼼히 발굴해냈다.

또한 본 논문은 주류문화 비판을 단순 나열·설명한 것이 아니라 운동적 맥락에서 살펴보면서 당시 문화운동이 표방한 이론적·실천적 과제 일부가 어떻게 사고되고 형성됐는지 동시에 알아봤다. 가령, 당시 대중문화를 소비문화와 상업문화로 비판한 원문을 제시·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민중성이 재현된 문화를 표방한 당시 문화운동의 가치 지향을, 정치적 중립성과 서구문예사조에의 맹목으로 비판된 문화주의가 한국판 리얼리즘이라 할 ‘민중적 내용의 민족적 형식’ 속에서 어떻게 비춰졌는지를 동시에 고려하며 논의를 전개했다. 이러한 작업이 본 논문의 성과이자 특별함이라 하겠다.

연구 결과,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서 대중문화와 문화주의를 위시한 주류문화에 대한 비판은 매우 단호했다. 이는 1980년대라는 시대적 요청에 대해 문화운동진영이 시급히 화답해야 했던 절박한 상황에 기인한다. 그렇다면 당시의 문화운동을 사회변혁운동의 부문운동, 삼민(민중·민주·민족)주의에 기초한 이념, 계급이해에 기초한 운동 주체, 중앙집권적 조직, 대중문화에 대한 엄격주의, 주류문화에 대한 타협 거부로 일반화한 기존 연구들의 평가는 온당한가? 다른 말로 위의 도식화로 1980년대 문화운동은 추호의 의심 없이 자명하게 그 성격과 의미가 정리됐는가? 문화운동 자체의 자율성과 계급으로 환원될 수 없는 소수자들의 목소리, 소소한 하위문화적 실천, 제도내로의 진입에 관한 고민과 움직임은 없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은 당시 문화운동과 담론에서 배워야 할 열정과 희생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1980년대의 문화운동담론이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되는 것으로 그 연구가 끝나서는 안 됨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다.

다음의 내용들은 지금까지 이뤄진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한 새로운 사실들이다. 먼저 당시 문화운동담론에서 문화에

대한 정치의 우위가 주장됐지만, 문화운동 고유의 전문성이라 할 예술성 논의가 뒷전에 밀린 것은 아니었다. 이는 현실 문제의 표명에만 집착한 나머지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지 못했다는 논의,⁷²⁾ 전체운동 차원의 전략·전술 결정에 무조건 따름으로써 문화운동 영역의 확장에 소홀했다는 논의⁷³⁾에서 확인된다. 다음으로 당시 문화운동담론에서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이 일방적으로 전개된 것도 아니었다. 이는 대중문화를 문화운동의 대상에서 빼버리는 것을 소수 민족문화론자들의 결벽증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⁷⁴⁾과 뽕짜를 창작 방법으로서의 리얼리즘에 근거해 재해석한 논의⁷⁵⁾에서 발견된다. 마지막으로 당시 문화운동담론에는 제도권 문화유통체계의 활용에 관한 논의가 발견된다. 이는 기존 문화유통구조의 활용을 문화주의로 규정한 태도에 대해 소아병적 발상이라 비판⁷⁶⁾한 논의, ‘노래를 찾는 사람들’, ‘노래마을’, ‘안치환’ 등 기성 제도내로의 진입을 시도한 사례 분석(이영미, 1997, 436)에서 확인된다.

비록 위의 논의들이 당시 문화운동담론에서 전면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논의되진 않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일반화시킨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즉, 전문성을 살린 예술적 완성도의 고민,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개입, 제도권 유통체계 활용 같은 유연한 자세와 고민들이 당시에 존재했었다. 본질적으로 문화가 혼성적 특성을 갖는 바,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서 구성된 ‘민중문화’ 역시 단일하고 순수한 결정체는 아니다. 그 안에는 대중문화와 문화주의를 비판한 각종의 현상과 논리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따라서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 내부와 그 연구들

72) 채희완·임진택, 『마당극에서 마당굿으로』, 『문화운동론』, 공동체, 1985, 112쪽.

73) 정이담, 『문화운동론 III』, 『문화운동론 2』, 공동체, 1986, 106쪽.

74) 김정환, 『예술성·운동성·대중성·민중성·일상성·전문성』, 『문화운동론 2』, 공동체, 1986, 143쪽.

75) 문승현, 『노래운동의 몇 가지 문제들』, 『문화운동론』, 공동체, 1985, 220쪽.

76) 최승운, 『문화예술운동의 현 단계』, 『문화운동론 2』, 공동체, 1986, 52쪽.

에는 다시금 살펴봐야 할 내용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연구가 본 논문의
완성 이후 진행해야 할 새로운 과제는 분명하다.

참고문헌

1. 논문과 단행본

- 강영희, 『마당극 양식론의 정립과 올바른 대중노선의 모색』, 『사상문예운동』 창간호, 풀빛, 1989, 171-196쪽.
- 광주청년문화회, 『왜 민중적 내용에 민족적 형식인가』, 『녹두꽃』 제1권, 녹두, 1988, 202-221쪽.
- _____, 『창작실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녹두꽃』 제1권, 녹두, 1988, 424-441쪽.
- 김대호, 『해방으로서의 영화』, 『문화운동론』, 공동체, 1985, 254-267쪽.
- 김봉준·라원식, 『함께 나누어 누리는 미술』, 『문화운동론』, 공동체, 1985, 242-253쪽.
- 김성기, 『민중형식과 그 테두리』, 『문화운동론 2』, 공동체, 1986, 150-178쪽.
- 김용락, 『민중문학론』, 『민중문화론』, 영남대출판부, 1993, 279-304쪽.
- 김정현, 『대학문화패 활동의 올바른 방향정립을 위하여』, 『문화운동론 2』, 공동체, 1986, 203-240쪽.
- 김정환, 『예술성, 운동성, 대중성, 민중성, 일상성, 전문성』, 『문화운동론 2』, 공동체, 1986, 122-149쪽.
-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한울, 2013.
- 김창남 외, 『노래운동론』, 공동체, 1986.
- 문승현, 『노래운동의 몇 가지 문제들』, 『문화운동론』, 공동체, 1985, 196-226쪽.
- 문호연, 『연행예술운동의 전개』, 『문화운동론』, 공동체, 1985, 52-77쪽.
- 민중예술위원회, 『삶과 멋』, 공동체, 1985.
- 박기성, 『문화커뮤니케이션과 대중문화』, 평민사, 1983.
- 박승옥, 『노동운동에서 문예사업이 전개되어야 할 방향』, 『녹두꽃』 제1권, 녹두, 1988, 154-163쪽.
- 박영정, 『80년대 민중문예운동의 전개과정』, 『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1991, 319-339쪽.
- 박현우, 『지식인 문화운동의 현단계』, 『문화운동론 2』, 공동체, 1986, 180-202쪽.
- 백원담, 『민중민주변혁운동의 현단계와 노동자문화운동』, 『사상문예운동』 창간호, 풀빛, 1989, 124-149쪽.
- 백진기, 『문예통일전선과 80년대 후반기 민족문학의 대오』, 『녹두꽃』 제1권, 녹두,

1988, 8-48쪽.

신승엽, 『노동문학의 현 단계』, 『문학예술운동』 1집, 풀빛, 1987, 154-195쪽.

신현준, 『1980년대 문화적 정세와 민중문화운동』, 『1980년대 혁명의 시대』, 새로운 세상, 1999, 213-243쪽.

심 산, 『창작역량의 조직적 운용에 대하여』, 『녹두꽃』 제1권, 녹두, 1988, 181-191쪽.

양은경, 『1990년대 한국 문화연구(Culture Studies)의 형성과 권력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연성수 편, 『공동체놀이』, 동녘, 1985.

윤문무, 『자본주의와 대중문화』, 『오늘의 한국사회』, 사회비평사, 1993, 83-105쪽.

이동연, 『한국 문화연구의 역사기술학』, 『문화사회』 제2권, 문화과학사, 2006, 225-260쪽.

———, 『대안문화의 형성-한국 문화운동의 최전선』, 문화과학사, 2010.

이영미, 『진보적 예술문화의 발전과 침체』,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6월민주항쟁 10주년 기념 학술대토론회 자료집 2』, 당대, 1997, 429-451쪽.

이재현, 『민중문화운동의 과제』, 『문화운동론』, 공동체, 1985, 176-195쪽.

임현영 외, 『좌담-문학과 예술의 대중화를 위하여』, 『문학예술운동 1』, 풀빛, 1987, 8-61쪽.

장명국, 『오늘의 작가는 무엇을 써야 하는가』, 『녹두꽃』 제1권, 녹두, 1988, 245-253쪽.

장선우, 『민중영화의 가능성』, 『실천문학』 창간호, 실천문학사, 1985, 147-157쪽.

정이담, 『문화운동 시론』, 『문화운동론』, 공동체, 1985, 14-30쪽.

———, 『문화운동시론 III』, 『문화운동론 2』, 공동체, 1986, 79-120쪽.

정지창, 『대중문화와 민중문화운동』, 『민중문화론』, 영남대출판부, 1993, 63-72쪽.

정창렬 외, 『권두좌담-공동체의 역사·경제학적 전망과 문화운동의 시각』, 『공동체문화』 제1집, 공동체, 1983, 9-42쪽.

정희섭, 『민중문화와 민중문화운동』, 『민중문화론』, 영남대출판부, 1993, 35-55쪽.

조상호, 『1980년대의 사회비판과 출판언론의 등장』, 『한국언론과 출판저널리즘』, 나남, 1999, 313-389쪽.

조정환, 『민주주의 민족문화론에 대한 자기비판과 〈노동해방문학론〉의 제창』, 『노동해방문학』 창간호, 노동문학사, 1989, 240-267쪽.

조항제, 『여가와 대중문화의 이데올로기』, 『한국사회운동사-한국변혁운동의 역사와 80년대의 전개과정』, 한울, 1997, 151-182쪽.

채광석, 『분단 상황의 극복과 민족문화운동』, 『문화운동론』, 공동체, 1985, 31-49쪽.

채희완·임진택, 『마당극에서 마당굿으로』, 『문화운동론』, 공동체, 1985, 102-150쪽.

- 최승운, 『문화예술운동의 현단계』, 『문화운동론 2』, 공동체, 1986, 14-78쪽.
최 열, 『우리시대의 미술운동』, 『문화운동론』, 공동체, 1985, 225-241쪽.
황선진 외,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실천적 대안』, 송건호 외 편, 『한국민족
주의론 II』, 창작과비평사, 1983, 381-420쪽.

- Arnold, Matthew. *Culture and Anarch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Bourdieu, Pierre.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Richard
Nice(tra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Fiske, John. *Television Culture*, London: Routledge, 1987.
Golding, Peter.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London: Arnold, 1977.
Goldmann, Lucien. *Cultural Creation in Modern Society*, St. Louis: Telos Press, 1976.
Stacey, Jackie. *Star Gazing: Hollywood and Female spectatorship*, London: Routledge,
1994.
Willener, Alfred. *The Action Image of Society on Cultural Politicization*, N. Y:
Pantheon, 1970.

Abstract

A Study on the Criticism of Popular Culture and Culturalism in the Discourse of Cultural Movement in the 1980s

Kim, Sung-Il(Kyunghee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form and significance of criticism of cultural movement discourse on popular culture and culturalism in the 1980s. At the time, in the discourse of cultural movements, popular culture and culturalism were understood as a culture for the sake of the ruling class to be used to suppress the resistance of the oppressed class. The cultural movement discourse, which was announced as part of the publishing movement, draws our critical attention as it speaks out the epistemology of the time.

The discourse of cultural movement in the 1980s carried out the criticism of the characteristics, medium, and effect of popular culture as follows. First, popular culture was criticized as commercial culture and foreign culture at that time; especially, the criticism was given to the pursuit of explicit profits and acceptance of culture b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Second, it was the criticism of the media, which was symbolized as “3S” and carried out in the monolithic cultural policy of the state power. Third, the effect of popular culture on the social reality was criticized that popular culture paralyzes social consciousness and distorted Shinmyeong(cultural sense of liberation and pleasure). Lastly, in the discourse of cultural movements in the 1980s, the criticism of artistic orientation, political neutrality, and Western dependence related to culturalism was developed as follows: firstly, the criticism of the nature of art by the culturalism that advocated “art for art’s sake” was carried out. Secondly, the criticism of the appropriation of art as an apolitical field was made. And, thirdly, the criticism of cultural elitism and blind faith in Western literary arts was raised.

Theoretically, discussions on the negative aspects and dysfunctions of popular culture and culturalism are relatively clear.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re has been no empirical prior study on the criticism of popular culture and culturalism in

1980년대 문화운동담론에 나타난 대중문화와 문화주의 비판 연구 / 김성일 201

the cultural movement discourse of the 1980s.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construct a narrative of the criticism of mainstream culture by examining and referring to the original texts of cultural discourse at that time.

(Keywords: the 1980s, cultural movement, the discourse on cultural movement, mainstream culture, popular culture, culturalism)

논문투고일 : 2018년 10월 8일

논문심사일 : 2018년 11월 5일

수정완료일 : 2018년 11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1월 13일